

대창공업(주)은 1997년 1월 노동부로부터 노사협력 우량기업에 선정됐을 정도로, 선진적인 노사문화로도 유명하다. 창사이래 30년간 단 한번도 분규가 없었고, 노조 대신 노사협회회를 운영하고 있다. 300여 명의 직원들은 아예 노조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 그만큼 복리후생제도가 뛰어나다. 퇴직보험, 단체상해보험, 40개의 사원임대아파트, 60여 명이 거주하는 기숙사, 주택자금대출과 사내대출제도, 자녀 학자금 등이 완비돼 있다. 또한 해외연수, 사내교육, 사외 파견교육 및 어학연수 등으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사우나실과 헬스장 운영, 콘도이용권 제공, 사우회 및 각종 동호회 지원 등 세심한 배려를 해준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자세다. 조 회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명 경영입니다. 경영 자체를 투명하게 한다면 불화와 갈등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라며 “노사화합의 기초는 서로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합니다. 투명경영이야말로 합리적 노사문화 건설의 핵심입니다.”라고 밝혔다. 그 다음에 임직원 모두의 자기 역할을 강조한다.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기업이 성장하게 된다

는 것이다.

‘정직’을 사훈으로 고객위주의 기업정신

그래서인지, 대창공업(주)의 사훈부터가 ‘정직’이다.

그는 “경영자 입장에서,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솔선 수범하여 투명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 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구조가 되어 하고, 국민의식의 선진화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

조회장은 30년 전 황동분야에 관심을 갖고 수공업으로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품이고, 국산품목은 주물이나 저급품뿐이었다고 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황동소재 국산화는 더욱 절실했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간파한 그는 세계 최고의 신동기업 건설을 목표로, 불철주야 신제품 개발과 생산에 매달린 끝에, 오늘날의 대창공업(주)을 일궈낸 것이다. 그는 “오늘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경제

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노력과 개혁을 요구합니다.”라며, “저희 대창은 전사적 의식개혁과 원가절감 등의 경영혁신, 끊임 없는 연구개발과 품질개선 노력, 환경관련 소재산업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초일류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또 “변함 없는 고객위주의 정직한 기업정신으로, 고객과 주주와 종업원 모두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되는 참다운 기업이 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피력했다.

조회장은 바쁜 와중에서도 시흥 상공회의소 회장, 연세대 경영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 등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 오래간다면, 국가적으로 더 큰 재앙이 닥쳐온다고 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라는 우국충정으로 조회장은 말문을 맺었다.

이렇게 항상 한 발 앞서가는 기업인인 그에게 이번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할 것이다.



◀ 왼쪽부터
·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최홍건 총장
· 조시영 회장



▼ 이두철총회장 순금 축하패 전달 - 이상봉국장이 대신 전달